

세계의

농·업·동·향·과

한국의

식·량·사·정

지난 '86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비한 식량은 약 1천5백50만톤에 이른다. 이중 7백만톤은 국내생산으로 자급됐으며 나머지 8백50만톤은 해외도입으로 충당됐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86년을 기준, 44.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동안 주곡인 쌀의 증산을 위해 박차를 가한 결과 필요량을 자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식량에서 쌀의 점유비가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요가 충족됐다 해도 전체적인 식량자급은 절반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것이다.

과거 '60년대, 한때 우리의 식량자급율은 94%에 이른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인구가 적어 수요량 자체도 적었지만 쌀 2백~3백만톤과 보리로 94%를 충족시켰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식생활이 질적으로는 형편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반면, 최근 우리의 식량자급도가 44.5%라고는 하지만 식생활은 질과 양 모든 면에서 크게 향상됐음을 알 수 있다.

'70년대와 '80년대 현재까지 우리나라로서는 정치·경제·군사 모든 면에서 특기할만한 시기며, 특히 획기적인 경제발전은 우리의 식생활과 식량의 질적수준에 큰 변화를 주었다. 보리 소비의 급격한 감소와 고급단백질 식품인 축산물의 소비가 크게 증가한 사실이 좋은 예일 것이다.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는 생산량이 '70년 5천톤에서 '80년대 70만톤으로, 우유는 4만8천톤에서 1백만톤으로, 계란은 25억개에서 60억개로 각각 늘었다.

이처럼 식량에 대한 기호가 변하면서 불가분 해외의존도도 높아지게 됐다. 도입곡물 8백50만톤에는 사료용 곡물이 4백50만톤, 소맥 2백만톤, 대두 1백만톤, 공업용 옥수수 1백만톤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서 대두 1백만톤중 기름을 잔후 80만톤 정도의 콩깻묵이 사료로 전환됐다고 봤을 때 사료용은 약 5백30만톤 들여온 셈이다. 결국 국내생산 7백만톤, 도입 8백50만톤 등 4,200만 인구가 1천5백50만톤을 소비해 1인이 1년에 3백kg 정도를 소비한

'86년도에 도입곡물 8백50만톤중
 사료용 곡물이 50%가 넘는
 4백50만톤을 차지했다.
 따라서 우리는 비상시에 대비해
 자급율을 높여 나가는데 힘써야겠다.



박 찬 공
 (한국사료협회 회장)

것이며, 이중 1/3은 사료용이니까 이부분 만큼은 육류로 소비한 것이 된다.

그러면 육류의 소비는 과연 얼마만큼 늘 것인가? 이는 장래의 식량사정을 예측키 위해 필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85년을 기준으로 미국 사람들은 1년에 1인이 1백14kg, 일본은 33kg, 우리는 16.8kg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볼 때 최소한 일본 수준만큼은 소비가 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며 시기는 5년 이내가 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생활이 윤택해지면 육류소비도 그만큼 늘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료용 곡물 도입도 늘고 있으며, 단일 품목으로는 석유 다음으로 외화가 많이 소비돼 정부가 쿼터제로 통제를 하고 있지만, 금년에는 6백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계 식량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세계곡물 총 생산량은 16억 6천만톤이다. 50억 인구로 나눠볼 때 재고, 이월량을 제외하면 대략 1인당 3백kg을 소비한 셈이다. 그런데 1인당 3백kg 정도면 생활해 나간다. 우리의 경우는 인구에 비해 식량소비는 세계의 1% 정도의 점유비를 보이고 있어 평균치를 조금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비록 아사자가 몇 십만이 되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2억 5천만톤 정도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 그중 미국이 2억톤 가량을 안고 있어 감산정책을 추진중이며, 세계 교역량의 60%를 점유,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다. 수입은 자급율이 낮은 일본, 소련, 한국, 중공, 멕시코 등의 순으로 수입량이 많다.

한마디로 우리의 식량사정은 낙관적인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비관적인 것도 아니다. 경제적 여유만 있으면 언제든지 도입으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분간은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국제 가격은 오를 것이다. 미국이 감산정책을 추진하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식량의 고급화와 더불어 식량의 질적 수준도 크게 향상돼 해외의존도를 줄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의존율이 확대되고 또 자급기반이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생산기술의 향상 등으로 농업을 더욱 발전시켜 자급율을 최대한 높여 나가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